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를 낳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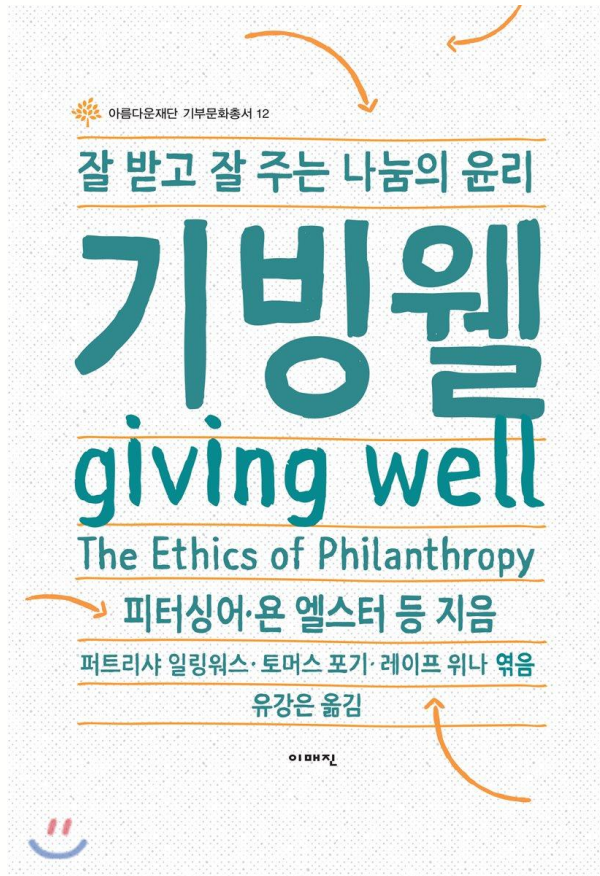
-국제구호 현장에서의 윤리 이슈 -

김현주 (realsea01@gmail.com)

- (전) 세이브더칠드런 해외사업부
- (현) Enuma, Business development
-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2016, 사계절 출판사)



<기빙 웰>의 질문을 우리의, 나의 질문으로



- 누가
- 누구에게
- 왜
- 언제
- 얼마나
- 어떻게
- 언제까지



“질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

I was

기부자의 질문

I am / I am being

원조 행위자의 질문

I will / I will be



기부자의 질문

- 왜
- 무엇을 기부해야 하나
- 얼마나 많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 기부금은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
-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 도덕적 명령
- 자선
- 우리가 야기했고 지금도 야기는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
- 사회적 자본의 재분배, 정당한 몫에 대한 이전



티셔츠의 기적 캠페인

5,000만 붉은 T셔츠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보내자!
그 생각이 **alleh**입니다


티셔츠의 기적

대한민국 축구를 뜨겁게 응원했던 오천만의 붉은 티셔츠~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따뜻하게 합니다
7/12~7/30 까지 전국 **룩소매장**과 **키볼러**자로 보내주시시오
당신의 붉은 티셔츠가 또 한 번 기적을 만듭니다

alleh kt  FOR YOU N FOR ME
Share together, Share tomorrow



붉은 티셔츠는 깨끗이 세탁한 후 보내주세요. 일부 룩소매장은 일요일 휴무 / 사들리지는 못, 일요일 휴무입니다.

alleh kt

동상이몽?

티셔츠의 기적

월드컵 마케팅 윤리의식 자원활동 한 번 입고 마는 티셔츠를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티셔츠의 기적 캠페인

유통업자는 9290원 받는데
만든 사람 손에는 130원뿐
1만5600원짜리 폴로 셔츠의 비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2013. 6. 11



— “선한 의도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자선/기부의 마케팅화 (Marketized philanthropy), (Nickel & Eikerberry, 2009)



“다양한 미디어 캠페인과 자선 및 모금 이벤트 및 행사에 사용되는 강렬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들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아프리카가 기아, 난민, 질병 등 거의 모든 인간 재난이 끊이지 않으며 실패한 국가, 대륙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RED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하는 자선의 가치는 이처럼 아프리카 이미지의 확대 재생산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상품의 구매를 넘어 이미지의 거래, 그로 인한 아프리카의 본질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 방식의 지원과 구호 활동만이 남는다는 점에서 과연 효과적인지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 2014)

- Nickel, Patricia Mooney & Eikenberry, Angela M. 2009. A critique of the discourse of marketized philanthropy. 52(7). 974-989
- 세이브더칠드런 (2014) 한국 미디어의 아프리카 재현 방식과 수용자 인식 조사

빌 게이츠도 저커버그도 '얼음물 샤워' 왜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 SNS 릴레이 기부문화로 78억원
"Africa's answer to ice bucket challenge: the 'Lather Against Ebola' campaign"



"돈을 내든지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유명인사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놀이터"
"미국식 기부 문화를 강요하는 캠페인"

"기부를 더 많이 모으는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선'은 아니다."
"기부의 카니발리즘"

Poverty Pornography



기부 모금 캠페인이나 신문 등 미디어에서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모금, 지지 등을 유도할 목적으로 쓰이는 이미지



빈곤퇴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굶주림으로 아이들의 생명은 숨이 막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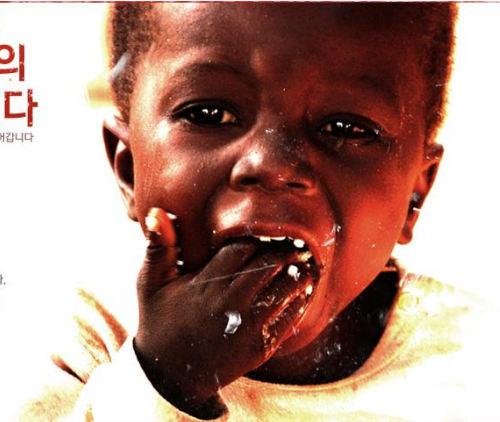
지금도 5초에 1명, 하루에 1만 8천명의 어린이들이 빈곤과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어곳의 가뭄은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낙타의 목을 베어
피를 마시거나 낙타의 오줌을 받아 쓰기도 합니다.”

- 케냐 코이, 최인호 기아봉사단의 말 -

케냐의 사막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아이,
배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동물들이 말라 죽고, 그 다음은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4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있는 케냐.
굶주림 속에 내일을 기억할 수도 없는 현실이지만
아이들을 땅이 되면 잃은 누더기 옷 한 장을 걸치고 학교로 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 출처 : 조선일보 [다나온 미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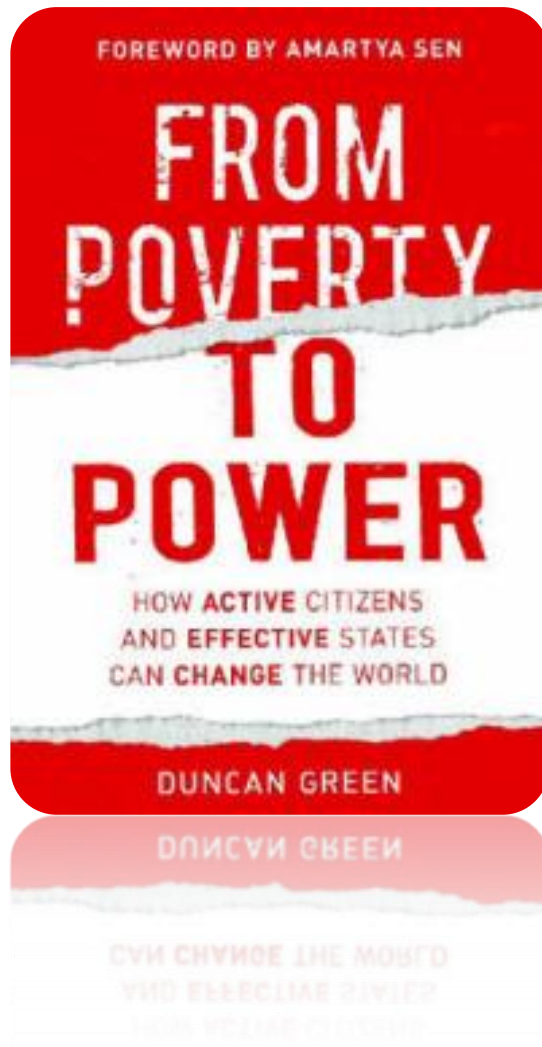


Class	Ticket type	Adult	Child
TD	STD OPEN RETURN	ONE	NIL
		OUT	
Start date		Number	
26-JNR-07 A		21355 439408913-30	
From	Valid until	Price	
SHEFFIELD *	25-FBY-07	£125.00 W	
To	Route		
LONDON TERMINALS	CHESTERFIELD	1758	
			
2-PART RETURN			
Printed 17:58 on 24-JNR-07			



빈곤을 보는 눈

개발에 대한 오랜 격언: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 여자는 고기 잡는 법을 이미 잘 알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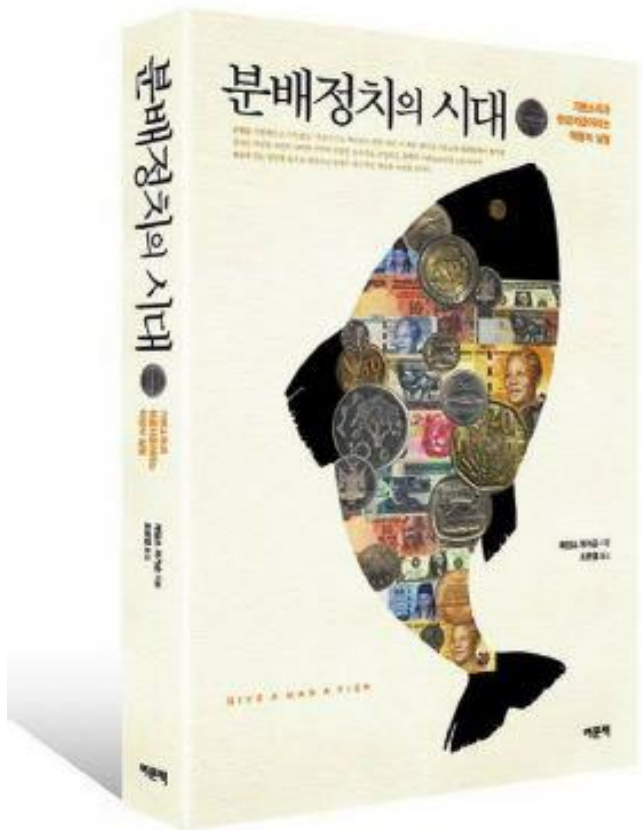
“단지 불법 벌목꾼이나 밀어꾼이 강을 좀 내버려두길 바랄 뿐이야.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원조를 받아 거대한 댐을 짓는 것도 원하지 않아. 자신들의 삶 피해를 주니까. 댐 건설 한다고 경찰이 마을을 강제로 퇴거시키니까 말야.”

“실은 어떤 자선도 바라지 않아.
그냥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거야.”

<빈곤에서 권력으로>, 던컨 그린, 이매진

빈곤을 보는 눈

개발에 대한 오랜 격언: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 자리는 아무래도 뭔가 실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내가 들은 얘기는 내가 집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거고, 그 점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집에 대한 권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집**을 원합니다.”

(NGO 주최 주거권 워크숍 참석자의 발언, 남아프리카공화국)

“몫 없는 자들”로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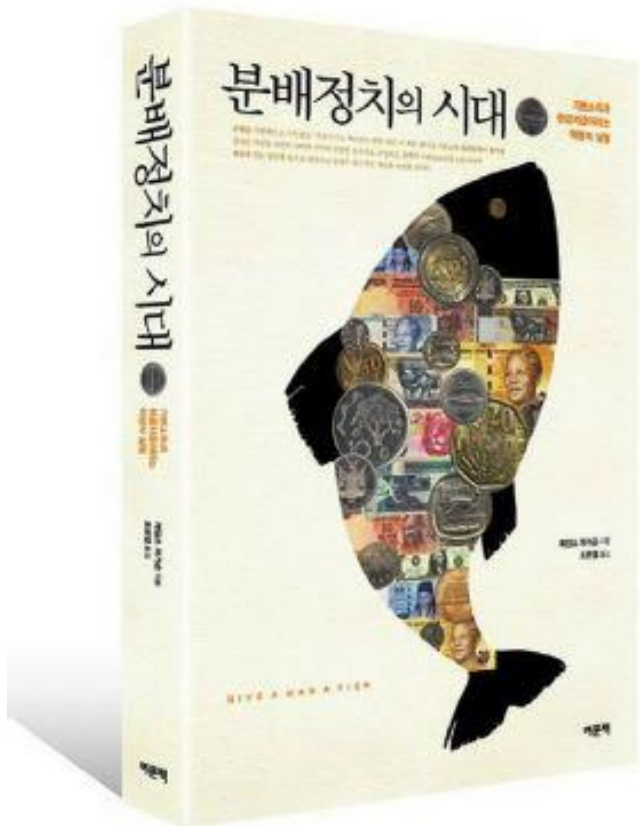
“적절한 몫 (Proper share of things)”
에 대한 요구

분배에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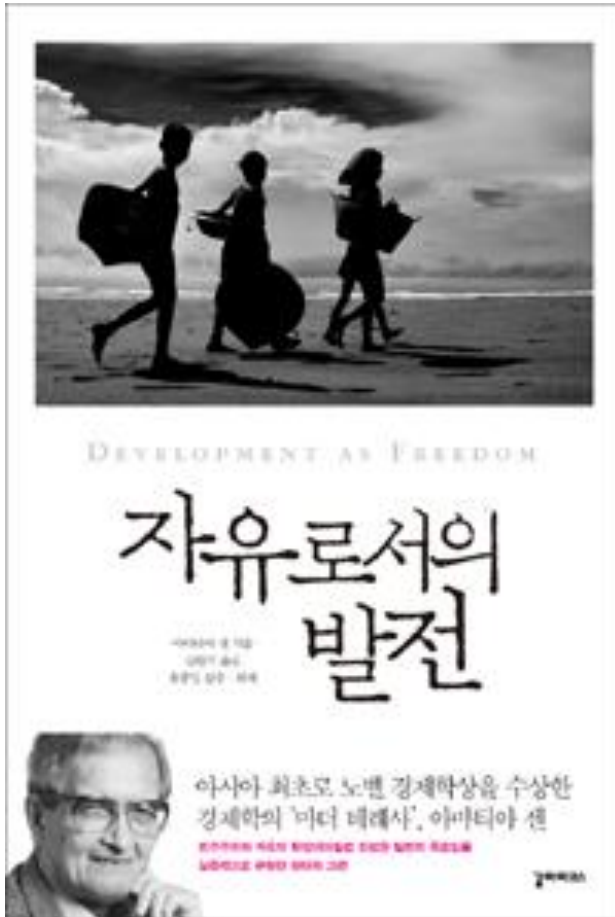
“물고기를 줄 것”

:가부장적 생산주의에서 분배의 가치 복원으로,

- “Give a **man** a fish”
- ‘개발’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하도록 만드는 것?
- 완전 노동을 전제한 생산주의, 의존성에 대한 우려 (특히, 남성 노동자 집단),
- 잠비아, 한 소도시의 수산회사의 임시 일용직 어부 채용 (5천 명의 구직자, 9명 사망, 38명 부상)
- 식용을 위한 1인 생산량 41파운드 (FAO, 2013), 왜 글로벌 수산업의 산출물이 공유되지 못하는가?
- 권리와 몫: 추상적 평등에서 구체적 재화의 분배에 대한 논의로의 확장



빈곤을 보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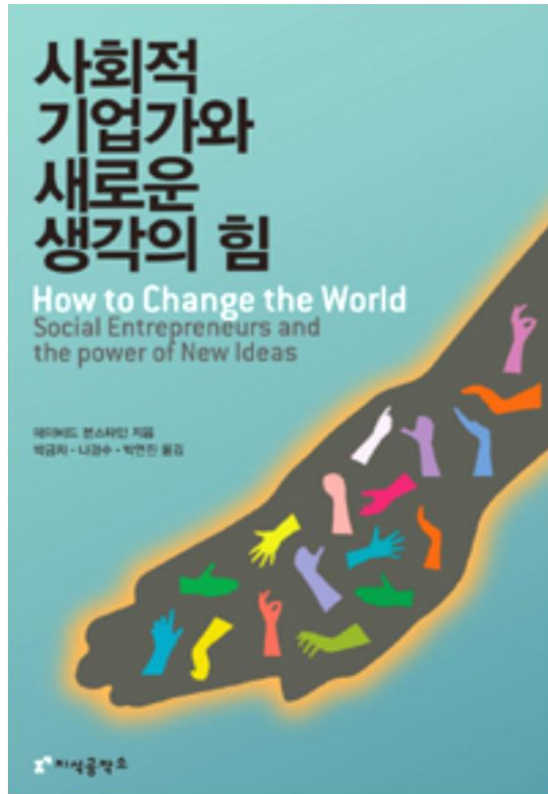


한 여자 아이가 학교에 갈
권리를 가졌다고 해도
물을 길거나 동생을 돌아봐야 하고,
학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여자 아이에게 교육은 별 소용없다는 사회적 편견
에 둘러싸여 있다면?

**사람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이를 결정하는가?**

역량, 한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인 동시에 정치
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

빈곤을 보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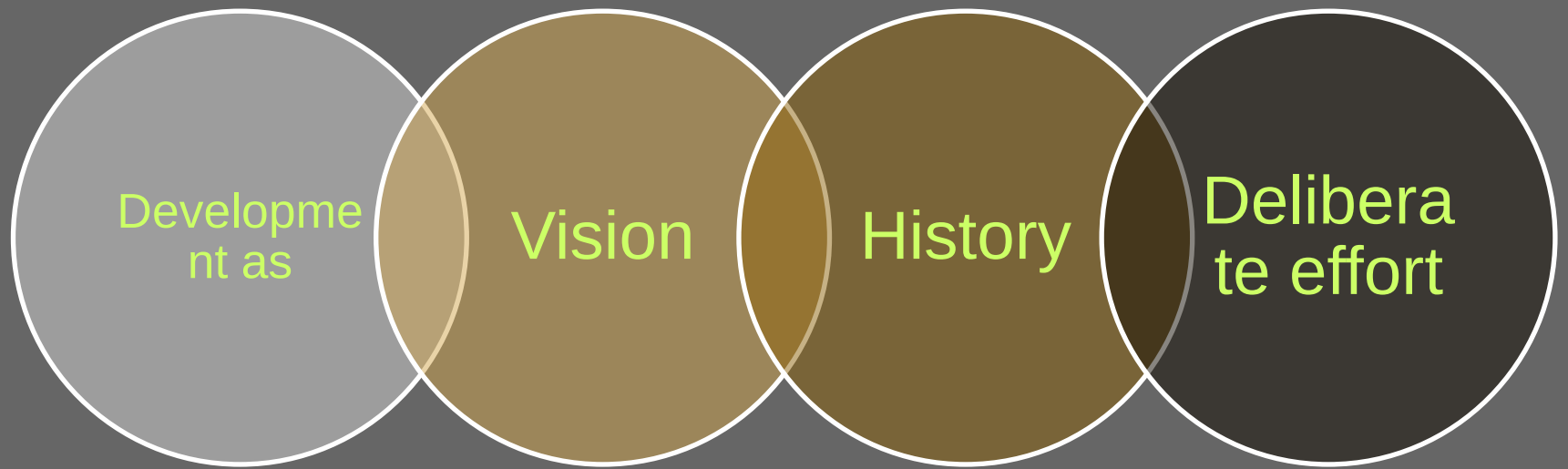
"구호 단체 직원들이 제도적 틀에서 활동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가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정의하여 새로운 조직과 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운동을 벌여 구호 활동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고기를 잡아주거나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기 잡는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 매진한다." (빌 드레이튼)

<How to change the world: Social Entrepreneurs and the power of New Ideas>

“물고기를 그냥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1. 개발주의 -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2. 기업가정신 -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고 유통하는 산업 자체를 변화시켜라.
3. 권리에 기반한 접근 -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 어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할 뿐.
4. 분배의 가치 복원: 누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물고기를 나누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정당한 몫에 대한 청구이다.
5. 지속가능성 발전 - 잡을 수 있는 물고기, 혹은 물고기가 살만한 깨끗한 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6. 탈발전 - 물고기가 왜 필요한가? 물고기야 말로 물의 존재를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곳에 산다. 물고기에 매달리지 마라. 경쟁적 자본주의 안에서는 시스템 자체를 사유할 수 없다. 벗어나라.



원조 행위자, 활동가의 질문으로

기부자들의 신뢰는 국제비정부 기구 직원들에게 3가지의 책임을 요구

1. 잘못된 우선순위 설정을 피할 것 (도덕적 요구, 분배공정성)
2. 실행 불가능하거나 피해, 역효과를 낳는 사업에 지원을 피할 것
3. 부주의와 부패 때문에 재원을 낭비하지 말 것

토머스 포기, '국제 비정부 기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기빙월>



원조 행위자, 활동가의 질문으로

"공여자들의 자금 지원은 너무도 자주, 시민사회 대신에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 사회'를 만들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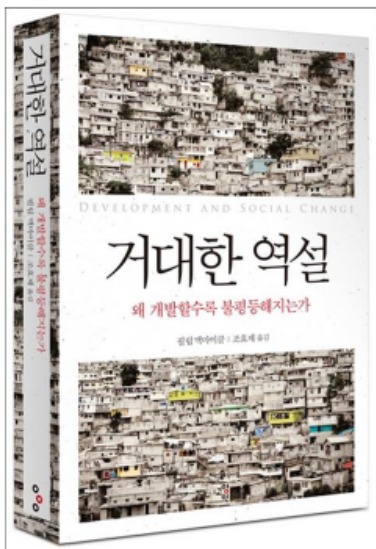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씨엠립 국제프레임워크 & 툴킷 (KCOC 번역본 발간)에서 인용

"The road to development in Africa is paved with pilot projects that never see the light of scale, primarily driven by donor appetites that prioritize innovation over replication."

발전을 운운하는 길은 수많은 파일럿 사업, 프로젝트로 덮혀 있다. 아이디어 의존형 기획, 현장이 없는 생태계와 동떨어진 전문가의 혁신, 시작부터 끝까지 가보지 않는 단기성 기획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Development' 발전 개념과 정책의 역사성



<거대한 역설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필립 맥마이클
지음, 조효제 옮김, 교양인 펴냄

1. 개발 프로젝트 시대 (1940-70년대)

- 1950년대) '저발전 (under-development)'의 발명과 마셜플랜 (1948-1953), 냉전
- 1960년대) 거대이론 중심의 발전론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자본공급 중심
- 1970년대) 경기침체 (오일쇼크), 빈곤감소와 기본적 욕구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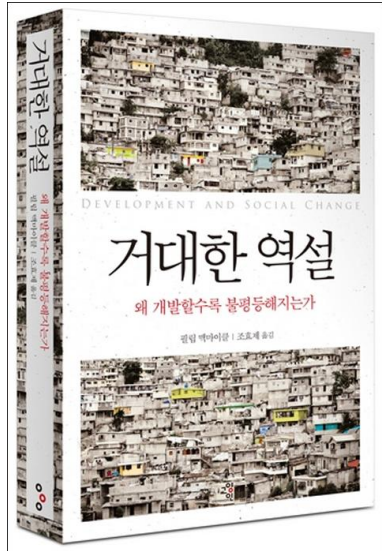
2. 지구화 프로젝트 시대 (1980 - 2000년대)

- 1980년대)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의 확산, 구조조정 정책 (개방화, 민영화, 긴축재정)
- 1990년대) NGO 활동 급속 확장, 세계은행의 빈곤 거버넌스 (빈곤감축전략 PRSP, 굿 거버넌스, 참여)
- 2000년대) 새천년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3.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형성기 (~현재)

- 불평등의 심화,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심화
- 지속가능발전 (SDGs) 의제의 재등장
- 빈곤층 포용적/친화적 성장
- 풀뿌리 사회운동, 환경운동으로서의 개발, 발전

'Development' 발전 개념과 정책의 역사성



<거대한 역설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필립 맥마이클
지음, 조효제 옮김, 교양인 펴냄

1. 개발 프로젝트 시대 (1940-70년대)

- 1950년대) '저발전 (under-development)'의 발명과 마셜플랜 (1948-1953), 냉전
- 1960년대) 거대이론 중심의 발전론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자본공급 중심
- 1970년대) 경기침체 (오일쇼크), 빈곤감소와 기본적 욕구접근법

2. 지구화 프로젝트 시대 (1980 - 2000년대)

- 1980년대)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의 확산, 구조조정 정책 (개방화, 민영화, 긴축재정)
- 1990년대) NGO 활동 급속 확장, 세계은행의 빈곤 거버넌스 (빈곤감축전략 PRSP, 굿 거버넌스, 참여)
- 2000년대) 새천년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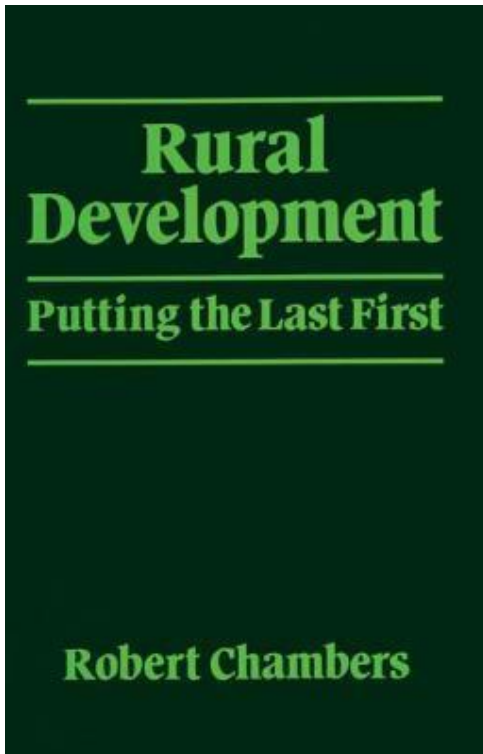
3.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형성기 (~현재)

- 불평등의 심화,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심화
- 지속가능발전 (SDGs) 의제의 재등장
- 빈곤층 포용적/친화적 성장
- 풀뿌리 사회운동, 환경운동으로서의 개발, 발전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무엇을 보는가

로버트 체임버스 (Robert Chambers)

개발 관광 (development tourism, 1983)' 6가지 편향성



1. 공간적 편향성
2. 프로젝트 편향성
3. 개인적 편향성
4. 뚜렷한 건기 편향성
5. 예외범절(갈등 회피) 편향성
6. 직업적('전문가' '해결책 제시') 편향성

'영수증 스캔 20분, 1년에 1만장'... 개발협력사업 발목 잡는 보조금

“보조금 방식대로라면 산골짜기 현지인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동티모르엔 수도에 있는 외국계 은행 하나가 전부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매달 3달러를 내야 한다. 일당이 4달러인 현지인 입장에서 돈 찾으려면 수도까지 가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2016년 우간다 월드비전에서 질병퇴치기금사업을 수행하며 3개월간(4/4분기)나온 사업영수증을 모아 놓은 것 / 월드비전 제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6/2017062602073.html

프로젝트의 문법 너머

- 개발과 발전에 대한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효과성의 추구
- ‘감사 문화’ (Strathern, 2000)라 불리는 투명성, 평가, 정량화된 생산성의 가치화
- ‘NGO 통치성’ (Karim, 2011) 규범, 운영의 표준화
- 효과적인 빈곤 감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수단과 방법이 자칫 정량화가 가능한 것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
- 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측정·검증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다보면 빈곤층에게 꼭 필요한 일보다는 측정과 검증이 쉬운 일을 하는 것으로 변해갈 우려
- 개발협력의 실행 과정에서 빈곤을 낳는 구조에 대한 도전, 빈곤층의 힘을 키우는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야 함

“어떻게”

“원조는 주로 일련의 독립적 사업별로 ‘분할 포장’ 됐는데, 공여국들이 이런 사업을 직접 관리하거나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략) 독립형 사업의 형태로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은 더 넓은 세계에서 동떨어진 ‘개발의 섬’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

로저 시 리델, '세계의 빈민 원조', <기빙웰>

“전형적인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30개 정도의 공적 공여자와 수십 개의 국제 비정부 기구가 1,000여 개의 지역 사업과 해외에서 온 전문가 수백 명에게 원조를 제공한다... 전체 원조 수준이 높아지고 분산된 공여자 수가 많아질 수록 원조 수혜국 정부에서 관료 집단의 질이 나빠지기 쉽다.”

레이프 위나, ‘가난은 연못이 아니다’, <기빙웰>

“도와준다던 그들이 다녀간 자리 ”



“도와준다면 그들이 다녀간 자리 ”

DON'T CREATE MORE ORPHANS

My New Orphan

THE MORE YOU DONATE THE MORE YOU CREATE!

TOO OFTEN DONATIONS DON'T HELP ORPHANS, THEY CREATE THEM.

Out of an estimated 8 million children living in institutions, more than 80% are not orphans. *

Support families, not orphanages.
www.thinkchildsafe.org

Supported by

Friends of the Earth, ChildSafe Network, UNICEF, USAID

*"Save The Children - Keeping Children Out of Harmful Institutions" (2008)

허우적거리기를 멈추기...

“어떤 문제가 매우 큰 규모로 인식되어 버리면 고작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지만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는 구체적이다.”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121쪽



두 가지 회피 경로를 피하기

“원조의 어려움에 직면한 (부유한) 개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두 가지 회피 경로**를 택하는 것이다.

- (1) 원조에 관한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 원조가 낳을 수 있는 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해 눈을 감고 모르는 척 하는 것.
- (2) 불확실성 앞의 이기심, 또는 ‘분석의 마비’. 개인들은 원조의 어려움에 어쩔 줄 모르게 되어 원조의 효과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개인만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데 몰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적절한 결론이 아니다.”

“‘어떻게’를 계속 찾아야 한다.”

레이프 위나, ‘가난은 연못이 아니다’, <기빙웰>



이분법을 넘어

“난관들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원조에서 피해보다 이익이 큰지 그 반대인지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니다. 유일한 목적은 부유한 개인과 극빈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의 대단히 복잡한 인관관계를 부각하려는 것이다.”

레이프 위나, ‘가난은 연못이 아니다’, <기빙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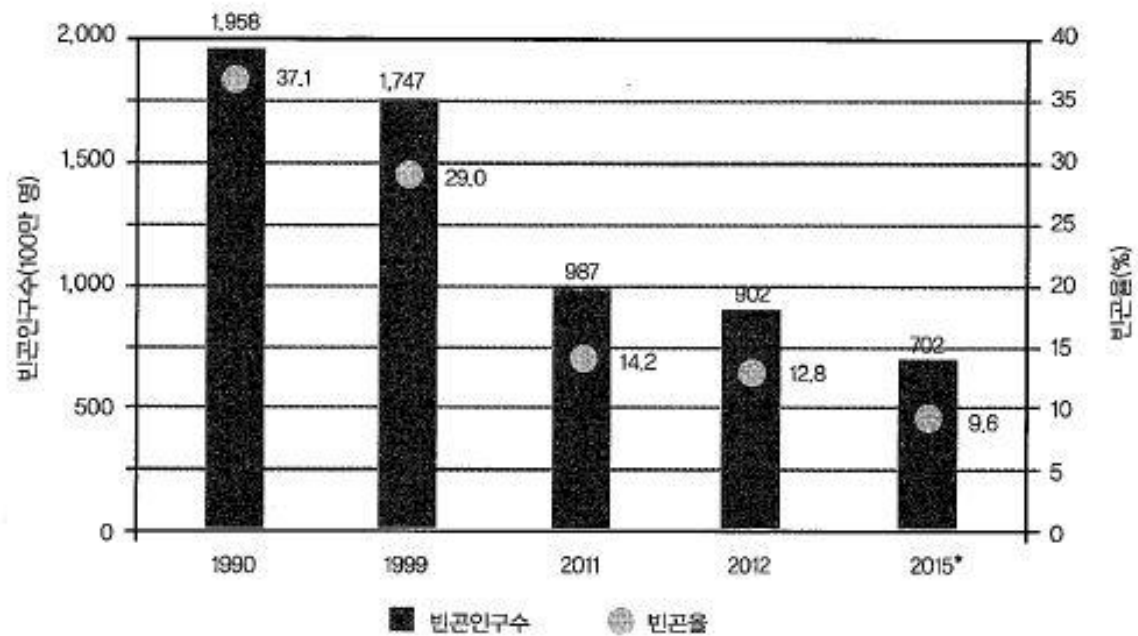
의존의 반댓말이 자립인가? 사회에는 다양한 의존이 있다. “어떤 의존은 장려되어야 하고, 어떤 의존은 줄여야 할까?”로 질문이 바뀐다면? 사람들 사이의 '의존'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원조가 죽었나? 살았나? 세상에는 다양한 원조의 방식과 내용이 있다. “어떤 것은 장려하고 어떤 것은 없앨지?” “어떻게”를 논한다면?

개발협력 사업 현장의 주민들은 수동적 수혜자이고, 사회적기업가인 주민은 혁신가인가? 같은 사람이 수혜자이자 혁신가이기도 하다.



| 그림 8-12 — 전 세계적 빈곤인구 및 빈곤율 감소 추이(1990~2015) |



2011년 PPP와 1일 1.90달러 빈곤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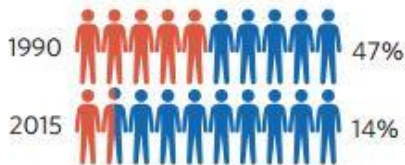
출처 : 세계은행(2015)

그림 출처: KOICA ODA 교육원 (2016)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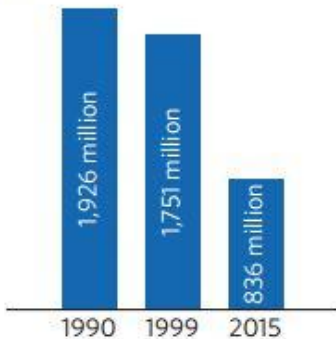
MDGs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Extreme poverty rate in developing countries



Global number of extreme p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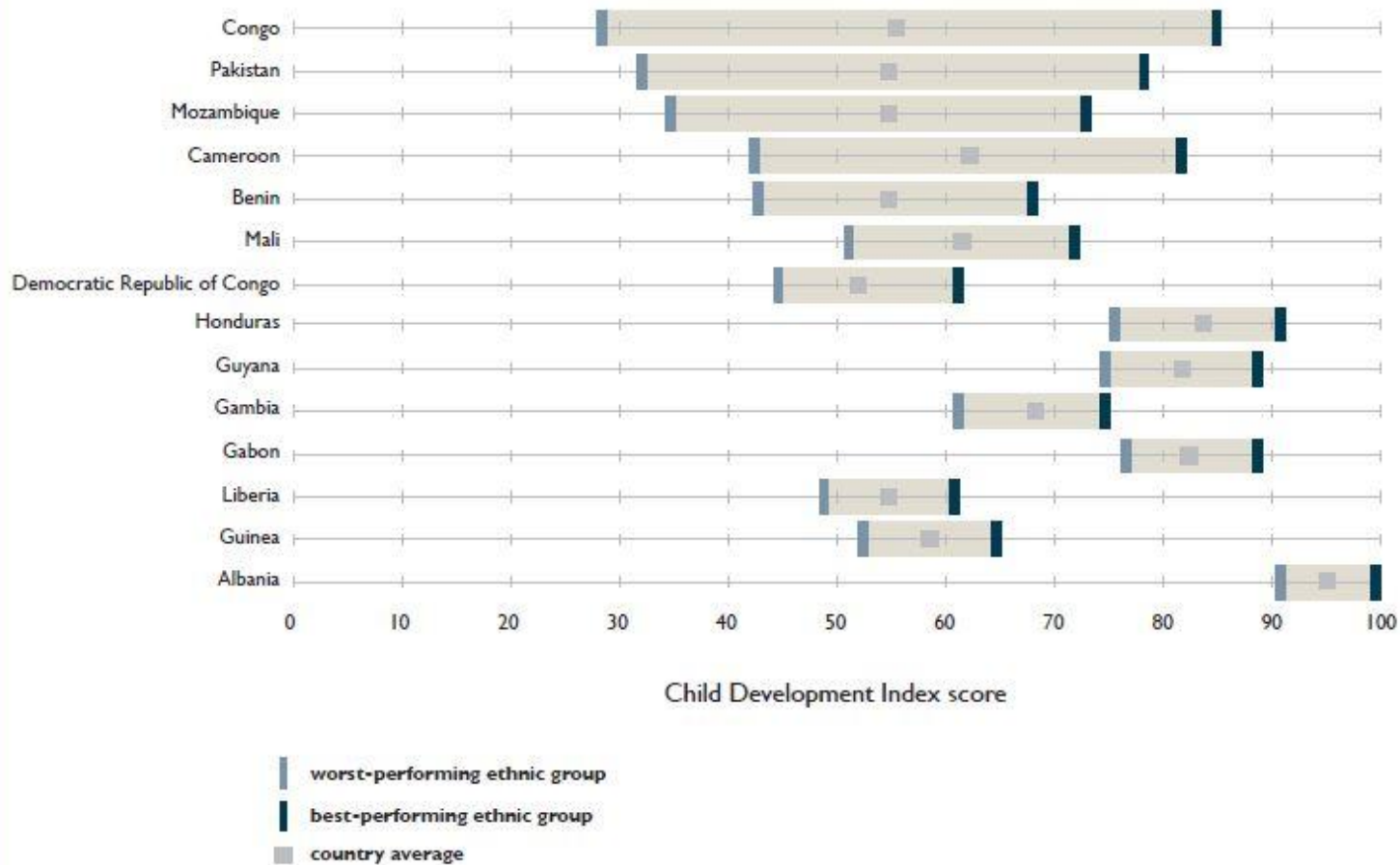


- Extreme poverty has declined significantly over the last two decades. In 1990, nearly half of the popul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lived on less than \$1.25 a day; that proportion dropped to 14 per cent in 2015.
- Globally,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has declined by more than half, falling from 1.9 billion in 1990 to 836 million in 2015. Most progress has occurred since 2000.
-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king middle class—living on more than \$4 a day—has almost tripled between 1991 and 2015. This group now makes up half the workforce in the developing regions, up from just 18 per cent in 1991.
- The proportion of undernourished people in the developing regions has fallen by almost half since 1990, from 23.3 per cent in 1990-1992 to 12.9 per cent in 2014-2016.

그림 출처: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FIGURE 3 INEQUALITIES IN CHILDREN'S LIFE CHANCES BETWEEN ETHNIC GROUPS

This graph compares the Child Development Index scores for the best and the worst performing ethnic groups for which data is available. Countries are ranked according to levels of inequalities in CDI scores between the best and the worst-performing group.



Uganda

Primary completion rate

Region Disparities ▾

Export  Share 

Show Help 

